

## 멜라니 클라인

### Melanie Klein (1882-1960)

=====

타고난 공격적(파괴성) 욕동이 즉각적으로 멸절 불안을 일으킴.

따라서 자아는 자신의 파괴성에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젓가슴**으로 투사한다.

*\*태어날 때부터 투사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프로이트의 자체성애와 일차적 자기개념을 거부한다.*

**젓가슴**에 파괴성을 투사함으로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젓가슴**이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

공격받는다 [편집 분열적 자리]를 구성함

유아는 모든 불편함을 외부로 투사하여 다른 곳에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불편함을 제거한다는 것은 좋은 감정의 핵이 존재한다는 것.

클라인의 작업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선과악의 대극적인 부분을 말한다.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엄마의 몸이다.

악은 좌절의 경험으로, 좌절의 상황은 젓가슴, 대상,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죽음 욕동을 강화시킨다.

죽음 욕동의 파괴성은 감각, 감정, 사고, 정신이나 몸 전체에 까지 산산조각 내어 증오로 채워진 파편들의 세상을 만들어 낸다.

모든 좌절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나쁜 대상관계를 강화시킨다.

이 좌절이 초기 대상과의 애착에서 공격성의 양을 결정하고,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유아의 능력은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된다.

이 좌절 경험은 환상 속에서 **젓가슴**을 가학적으로 공격함

**젓가슴**이 만족을 주지 않고 있다고 믿기 때문.

이런 가학적인 **젓가슴**의 공격은, 어머니 내부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다.

이런 공격은 **멸절불안**을 완화시키지만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 **박해 불안**으로 변형된다.

*\* 박해 불안은 이상화된 대상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젓이 넘치는 젓가슴, 언제나 흘러나오는 환상은 모든 좌절과 부정의 경험을 잊게 만든다"*

**박해불안**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통제하기 위해)  
자아는 나쁜 **젓가슴**을 내사한다.  
내사한 나쁜 젓가슴은 초자아의 악의적이고 **가혹한 측면의 핵심**이 된다.

수유 단계가 초기 대상관계 경험이 되며-> 자아 초자아가 형성됨  
젓을 잘 빠는 아이들이 덜 공격적이고 탐욕적임.  
좋은 젓가슴의 내사는 호의적인 **초자아의 핵**을 형성한다.

이제는 그 위험이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다시 투사 -> 내사 -> 투사 순환되면서 좋은 대상 경험이 지속적으로 제공 될 때 불안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

좋은 내적 대상이 불충분해지면 대상의 파괴성을 통제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지체인 대상의 내사를 사용해 재-내사가 되고 이것은 정신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힘" 힘이 되고 "밀고 들어가는 힘"은 외부에 통제되는 느낌을 가져오고 타인이 자신의 마음과 신체를 통제 할 수 있다고 믿음 -> 편집적 망상

\* 편집적 망상은 박해불안에서 박해대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상화 대상이 견딜 수 없는 큰 실망이 생길 경우 출현한다. 이 때 이상화 대상과 박해 대상을 분열시킨다.  
심각한 분열은 투사와 내사 방어기제로 불가능 할 때 사용된다.

모든 신경증 뒤에는 정신증이 숨어 있다

정신분석언어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접근이었다면 클라인의 언어는 “안으로” 들어가 그 의 삶의 경험과 그 자신에 대한 경험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접근이다.

유아가 뱃속의 나쁜 것이 배를 물어뜯고 있어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 때 나쁜 것을 물리치는 아군이라는 환상으로 위로한다고 말한다면 유아의 주관성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환상 속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인 공격은 무기력한 자아뿐만 아니라 좋은 젖가슴까지 위협하기에 만족을 주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 분열시킴: 그 결과 자아의 응집성이 약해진다.

유아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어느 정도 혼합된다고 믿었다.

클라인은 또한 유아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성적 환상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동기를 발견했다. 거세 불안은 유아가 지닌 무의식적인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충동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과 신체의 내용물을 독차지하거나 망치고 파괴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똑같이 할까 봐 두려워진다.

그 한 가지 방식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이는 부모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고 말했다고 확신한다. 아이는 반드시 부모가 하지 않았던 생각도 부모가 했다고 생각한다.

클라인은 부모의 실제 행동의 중요성은 아이가 그 행동을 기존의 환상을 확증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환상세계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며, 아이의 환상 속에 있는 무서운 측면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행동을 잘하든 못하든, 현실은 아이의 환상보다 덜 소름 끼친다.

자아의 구조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내재화에 따른 산물이다.

자아는 내부에서 오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이상화 된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 결과 전능감이 발생한다.

이 전능감은 유아에게 자신의 운명을 무한히 통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경험에 속한 무력함과 좌절을 지워버린다. -> 이렇게 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일차적 방어이다.

편집적 자리에서

유아의 무력함과 의존은 만족에 대한 욕구를 공격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

젖가슴에 욕구를 인식하는 즉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갖고 있는 좋은 젖가슴에 시기심을 느낀다.

*유아는 자신의 만족 근원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아주 초기에 인식한다고 믿음*

그런 좋은 젓가슴을 혼자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하기에 시기심의 표적인 된다.

유아에게 좌절은 항상 젓가슴이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심은 파괴의 목적을 갖기에 좋은 대상에게 위험이 되고 방어해야 한다.

첫 번째 방어가 평가 절하다.

두 번째 방어가 대상을 이상화하여 망가뜨리고자 하는 증오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함

*\* 방어하는 한편 더 좋은 것이 시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과도한 시기심을 지닌 아이는 그 시기심을 분열시키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과장되게 노력하고 순응 할 수 있다.

정신증은 투사적 동일시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내재화된 나쁜 대상**들은 끊임없는 위협으로 인격<sup>1)</sup>을 지배하고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의 통합을 방해하며 합리적인 초자아로 발달하지 못하도록 함 그러므로 통합된 초자아 구조 대신에 **내재화된 박해대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 경계선환자, 심각한 인격 장애, 끊임없는 자기 - 책찍질은 초자아 발달이 방해 받았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내재화된 좋은 대상이 연약한 상태가 되면 합입하고 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낳는다. 좋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삼키지만 좋은 대상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 그 결과 자아는 무차별적으로 외부 대상과 동일시하고자 절박하게 추구한다 → “마치 인양 인격”

좋은 내적 대상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자아는 극심한 위협을 느끼면서 외적 대상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 방어가 자아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망상적 정신증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경계선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매달리는 의존, 지나친 요구, 과도한 기대, 분리하지 못하는 무능은 모두 타자에게 **투사된 공격성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대상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기는 대상을 향한 허기와는 다른 역동을 가지고 있다. 클라인은 아동기에 일차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증거로 보지 않았다.

초기 좌절을 인정하지만 그 좌절에 따른 공격성이 증가시키고 나쁜 대상 형성하며 박해불안을 증가.

투사적 동일시에서 외적 대상은 통제되어야 한다 → 투사된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 투사적 동일시 과정은 분열성기제이며, 이 기제가 인격을 지배할 경우 -> 외부 대상은 자기 표상이 된다.

자아는 공격성에 대한 불안에 지배되기 때문에 대상을 공격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으로 본다.

*\*대상이 자기와 동일시된다. 그렇게 되면서 대상을 집착, 침범, 경계가 모호하게 됨.*

*또한 대상이 자기와 동일시되면서 자아의 안정을 위협받음으로 자아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 접촉으로부터 분열성적 철수를 일으킴. 즉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격의 한 부분이 분열된다.*

*\*분열성 환자는 인격의 주된 부분을 파괴한다.*

사례) 성공한 후에 치료를 시작 한 여성 내담자

꿈- 마술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님, 창문을 통해 소가[분석가] 담요를[분석가의 말] 끝없이 먹

1) 관찰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자아-동조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유형

고 있는 것이 보임,

이것은 분석가가 다시 삼켜야 하는 것, 그 이유는 환자가 이제는 분석가 보다 우월하다고 느낌, 그리고 그 담요는 분석적 해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식에서는 분석가를 칭송하지만 평가절하 하는 자신의 태도에 **충격**을 받음

*\* 자신의 파괴적인 욕망을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음.*

환자가 분석가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시기심으로 분석가를 손상시키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싶은 소망과 이것이 그녀의 인격에서 분열된 공격적인 부분임을 말해준다.

그녀는 자신이 나쁘고, 비열함을 느꼈다. 그녀의 죄책감은 분석가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경멸과 증오를 느끼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짐.

그녀가 무의식에서 자신의 시기심과 파괴적 충동을 사용하여 망가뜨리고 손상시킨 어머니에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짐.

시기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과 분석가를 이상화시켰다. 그녀의 직업적인 성공이 이 방어를 깨고 경멸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게 했다. 평가절하는 분석가에 대한 시기심, 손상을 입히고 싶은 욕망과 감정들을 숨겨주는 보호막이었다.

시기심-> 좋은 대상의 **내사를 방해**

*\* 자아는 내재화된 좋은 대상이 결여됨으로 더욱 약해짐*

*약한 자아는 잠재적으로 좋은 대상을 시기하는 경향이 있음, 좋은 대상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조속한 죄책감을 낳게 된다 -> 투사 -> 박해불안*

시기심은 편집증의 일차적 원천이다.

*\* 죄책감이 박해불안과 자주 혼동한다.*

편집적 자리에서 죄책감이 조속하게 발달된 6세 된 에레나 여자아이

강박신경증: 도둑에 대한 공포인한 불면증, 머리 흔들기, 몸을 앞뒤로 흔들기,

엄지손가락 빨기 그리고 자위를 포함한 강박활동들, 우울증, 심각한 학습장애, 어머니를 지배하기 위해 강박적인 감시, 어머니의 모든 질병은 자신에게 책임 있다고 느낌, 그로인해 자신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

여자아이 환상은 구강기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항문기-가학적인 특성을 나타냄.

- 이 여자 아이는 부모의 성교 장면을 목격했다. -> 부모 모두에게 증오와 시기심을 가졌다.

놀이에서 두 개의 "타오르는 빨간" 램프를 분석가에게 빨게 하고 자신의 입에 그것을 넣었다

*\* 램프는 어머니의 젖가슴이고 아버지의 페니스로 해석됨*

이런 놀이 뒤에는 격노에 찬 공격과 시기심이 드러났고 뒤이어 가책과 그녀를 고쳐주고 달래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분석가와 강렬하게 경쟁하는 게임, 종이를 자르고 "피가 나오고 있다"

세탁업자가 되는 놀이에서 아이에게 벌을 주고 창피를 주는 역할을 함.

그 후 세탁업자에서 생선장수로 바뀌었고, 수도꼭지 틀었고, 종으로 수도꼭지를 감싸고 나서 그 꼭지에서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생선을 씹었다.

*\* 부모의 성교장면을 보면서 여자아이의 일차적 환상 안에서 느꼈던 구강적 시기심을 보여준다.*

놀이1. 분석가를 속이는 놀이:

분석가가 아이역할이 되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하는 동안 아이는 여왕이 되거나 관객들에게 칭송받는 연기자 놀이함

*\* 경찰이 아이 편이었기에 분석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적대감과 시기심을 보여줌

놀이2. 여아는 자신의 남편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죽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나서 병에 걸렸다.

*\* 이 아이는 부모의 성교를 목격했고 그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과한 모든 한계와 교육적 수단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어머니에게 박해받고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어머니를 두려워했다.

클라인은 아이의 도둑에 대한 공포는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적대감과 시기심 그리고 어머니의 내부를 손상시키려는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

아이의 가학증과 시기심 또한 투사적동일시를 통해 어머니에게 투사, 이것은 어머니를 끊임 없이 감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클라인은 부모의 원색적인 성교 장면이 아이가 부모처럼 하고 싶지만 자심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성, 시기심 그리고 가학증을 증가시킨다.

- 강박적으로 엄지손가락 빨기는 젖가슴을 깨물고 삼키는 환상에서 온 것이라 해석했다.

- 좋은 경험은 내재화된 좋은 대상관계와 즐거움을 만들어 낸다.

*\*즐거움의 열매는 감사이고 이 감사는 편집적 자리에 있을 때 경험 했던 즐거움이다.*

강렬한 시기심과 파괴적 충동이 즐거움과 감사능력 발달을 방해함

- 성격 병리는 편집적 자리에서 비롯됨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경우 망상적 편집증

만약 망상이 발생하기 직전에 방어체계의 고착이 발생한다면 투사적 동일시에 고착됨

이 성격병리(비 정신증적 편집적 자리에 고착)는 다음과 같은 방어들이 사용됨

이상화, 전능성, 부인, 대상의 평가절하, 분열 <- 이런 방어들에 의존하는 자아구조는 경계선

성격이라 불린다.

인격 안에서 분열성 기제들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면 인격의 정서적 요소는 묻혀버린다.

- 원시적이고 응집력이 없는 연약한 자아는 항상 희생자이다. 자아가 스스로를 행위자로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책임감을 발달시킨다.

- 우울적 자리는 자신이 손상 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로 경험 -> 우울불안

이 우울 불안은 전체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우울불안이 생기고 그 결과 편집적 자리로 퇴행하려는 충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함

\*따라서 공격성의 표적도 대상과 자기 사이를 오고가게 된다.

- 생후3개월~6개월쯤에 우울적자리가 시작된다.

좋은 대상이 내재화 되면 자아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동일한 대상임을 인식함  
6개월쯤에 오이디푸스가 시작됨-> 부분 대상에서 전체 대상으로 ->편집적 자리에서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남 ->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손상시키고 싶은 욕망을 느낌

- 죄책감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손상되는데 따른 불안에서 유래된다.

대상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

만약 유아가 환상 속에서 손상된 대상을 고쳐주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느낀다면 죄책감은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손상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편집적 자리에서 좋은 대상의 내사와 계속적인 좋은 신체 다루기에 의존되어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아이에게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런 느낌은 죄책감을 완화시킨다.

부정적인 경험은 과도한 죄책감과 무가치감에 지배되기 쉽다.

클라인은 성인의 삶에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울적 자리의 보상 경험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이런 경험이 없을 경우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을 손상시키고 파괴 할 것이라는 만성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사랑관계에 관한 끊임 없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공격적인 느낌이 나타 날 때는 더욱 그렇다.

성공적인 성인의 사랑관계는 우울적 자리에서 완성하지 못한 보상을 완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

환상 속에서 애정 대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은 시기심과 탐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 대상을 확신하지 못하고 >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탐욕스러워지고 다시 시기하게 된다. > 시기심과 탐욕이 더 증가함에 따라 좋은 대상이 파괴 되는 공포가 심해지는 병리적 순환이 만들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좋은 대상의 내재화와 보상이다.

- 애정대상을 손상시키려는 공격성에 대한 압도적인 불안을 처리하기가 너무 약한 자아는 환상 속에서 부모인물을 회복시키기는 전능방어에 의지하게 된다.

보상경험이 나쁜 대상을 통제할 수 있고 좋은 대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술적 능력에 대한 전능적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증은 우울적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 좋은 대상에 대한 위험을 부인> 우울불안이 사라짐 > 현실적인 좋은 대상의 중요성이 부인되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아는 현실과 심리적 현실 모두 부인한 채, 과장되게 내재화된 좋은 대상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런 조적 상태는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 철저하게 방어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모든 의존이 부인되고 자아는 현재 동일시하고 있는 이상화된 내적 대상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만성적인 외도나 성적 문란 역시 하나의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 좌절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현실을 받아 드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조적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계속 오고가면서 심리적 실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한다.

조적 방어가 실패 할 때 심리적 해체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대상을 회복시키려고 필사적인 시도로 강박증을 일으킨다. 초기 공격적 충동이 성공적으로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파괴한 공포스러운 대상을 마술적으로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 해결하지 못한 우울불안은 다양한 병리적인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 보상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경우 보상에 대한 욕구는 완벽함에 대한 욕망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에 대한 공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직무장애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완벽한(애정대상이 입은 손상을 회복시킬 수) 결과만이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 할 수 없는 개인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책감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어떤 보상도 없다고 생각되면, 그 죄책감은 깊이 억압 된다. 이런 경우 초자아는 붕괴되고 손상의 원천은 외재화 되어 반사회적 병리를 발생시킨다.

- 아이가 회복시킬 수 없다고 느끼면 자아는 조적방어에 고착이 된다.

클라인은 애도의 과제는 상실한 대상을 내사하는 것이라는 프로이드 견해에 동의 했다.

성인이 상실을 경험 할 때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모에 대한 유아적 환상이 불가피하게 활성화된다. 이 때 환상적인 삶 속에서 손상된 부모들을 회복시키으로써 상실 된 대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은 슬픔을 극복 할 수 있게 하며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그러지 못 할 때 애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한 번 더 파괴 되었다고 느낀다.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불안으로 마비되며 이러한 요소로 애도에 포함 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다.

애정대상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을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격성을 억압한다. 우울증 환자의 가혹한 내적 자기-박해는 애정 대상에게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한 자기-증의 산물이다. 자기학대는 죄책감의 산물이며 좋은 대상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

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애정대상을 파괴하는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상에게 만족을 경험하면 애정 대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까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된다.

그러면 대상과 분리를 힘들어하고 애정대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무의식적인 불안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주는 접촉을 필요로 한다.

우울적 자리로부터 가장 쉽게 도피하는 길은 편집적 자리의 분열된 상태로 퇴행하는 것이다. 저항이 가장 적은 방어인 분열은 상실에 대한 불안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상을 다시 분열시킨다.

*\*편집적 자리로 퇴행은 다시 박해 불안을 일으키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우울적자리를 회피하는 보다 경미한 병리 방법으로 “외적대상에게로 도피” 할 수도 있다. 클라인은 우울적 상황에서 죄책감은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유아기에 경험 했던 사랑하는 대상에게 향한 무의식적인 증오는 성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 여기에서 생긴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외적대상으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받으려는 지속적인 욕구와 의존을 낳는다.

타자에 대한 의존이 신경증적인지 아니면 보다 심각한 병리의 표현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외상과 죄책감의 고착이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가에 달려 있다.

- 섭식장애는 박해대상과 음식을 동일시하는데서 기인한다. 음식 또는 먹는다는 것은 신체나 좋은 대상에게 위험한 공격으로 경험된다. 깨물거나 씹어서 좋은 대상을 파괴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공포는 우울불안이 음식에게로 전치된 것을 나타내는 반면, 외적 물질의 섭취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한 불안은 편집적 유형의 불안이 음식에게로 전치된 것을 나타낸다.

많은 정신 병리는 우울적자리에서 우울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로 생겨난다.

## 투사적 동일시와 의사 소통

1950년대에 몇몇 클라인 분석가들은 파괴와 공격성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는 투사적 동일시의 형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장의 앞의 사례에서 다루었던 투사적 동일시들과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 사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

비운은 생생하게 재구성된 몇 개의 사례들을 요약했다.

분석적 상황은 내 생각에 아주 초기 장면의 느낌을 갖게 했다. 나는 환자가 유아기에 유아의 정서적 표현에 의무적으로 반응했던 어머니를 목격했다고 느꼈다. 의무적인 반응은 그것

안에 참을 수 없음의 요소 '나는 어린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찢찢매며 아기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어머니를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와 같은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경험을 숙고해야만 한다.

나의 추론은 아기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유아의 울음을 그녀의 현존에 대한 요구 이상으로 취급해야 한다.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어 간다는 두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아기가 내사를 위해 필요한 인격이며 아기가 투사한 부분을 알아주는 자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기가 스스로 담을 수 없는 것은 이 두려움이다. 그는 두려움을 인격의 부분과 함께 분열시키고, 어머니 안으로 투사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해 주는 어머니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아기가 다루고자 하는 공포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균형된 관점을 유지한다.

환자는 투사적 동일시—의사 소통의 형태로서의—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 그것은 단순히 축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일종의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어머니는 그 의미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사적 동일시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비움의 기능을 수행한다. 어머니는 이 어려움에 직면한다: 어머니는 아기가 견딜 수 없고 비움 필요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투사적 동일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압도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환자는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들의 진입을 부정하거나, 혹은 아기의 감정을 내사함으로써 불안의 희생물이 되는 것으로 반응(reacted)했던 어머니를 다루어야 했다.

우리는 정신분석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심리분석가 역시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담아 주어야 할 것이다. 환자는 그 자신 혹은 그녀 자신의 투사된 부분을 감당하는 대상을 경험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단순한 축출적인 투사인 비움을 능가하는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불안과 씨름한 어머니(그리고 정신분석가)에 관한 환자의 환상,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하여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는 어머니/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동경은 증오하는 외적 대상에 대한 정신의 부분들의 파괴를 강요하는 무절제한 공격 성과는 아주 다르다(시력을 상실한 남자의 사례와 변기로서의 대상 사례를 보라, pp. 109, 120).

투사적 동일시는 종종 타자의 인격에 어떤 충격을 준다. 예를 들면, 아기가 울 때, 어머니는 즉시 긴장한다. 그녀는 놀라면서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한다. 그리고 그때 울음이 의미하는 욕구 혹은 무드가 무엇이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머니가 종종 유아 안에 있는 공황불안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공황불안의 느낌을 가지고 그 상황에 직면해야만 한다. 정말로,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아기에게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비이다; 아기의 울음에 대한 반응에는 선천적이며 생물학적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에서 혹은 가게 안에서 우는 아기가 있을 때 함께 불안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

물론,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비움의 형태에서처럼, 그것이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어머니 안으로 혹은 분석가 안으로 투사할 때, 거기에는 아직 환자의 정신(혹은 유아의 정신)의 분열 작용이 있다. 그것은 여전히 자아에 대한 공격성, 자아의 부분을 분시켜 그것을 외적 대상

안으로 투사하는 것을 수반한다. 또한 우리가 다음의 비온의 사례들에서 보게 될, 이러한 종류의 투사의 힘 역시 매우 난폭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 마지막 사례는, 투사적 동일시가 의미 형성의 원시적 방법, 혹은 의미 형성을 위해 어머니의 정신의 도움을 불러내는 원초적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생각의 잠재력, 그리고 그 능력을 생성시키는 잠재력을 포함한다. 정신분석은 함께 의사 소통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생성한 상들을 창조하는 상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때때로 이 능력은 정신분석가의 정신 안에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되돌려질 수 있어야 한다(정신분석가는 그것을 재 투사하고, 환자는 그것을 재 내사한다). 그러한 과정은 담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신분석 상황 안에서 그것의 형태는 10장에서 연구될 것이다. 담아 주는 것에 대한 비온의 개념은 연결하는 것에 관한 그의 생각에 대한 정교화의 하나이다(7장을 보시오). 담아 주는 사람과 담겨진 사람 사이의 연결은 하나가 다른 것 안으로 들어간—여러 종류의 정서적 특색, 그리고 정서적 결과와 함께— 결과이다. 담아 주는 것은 어머니와 아기, 혹은 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연결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활동과 분명히 관련된다.

### 담아 주기

환자의 의도는 그의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분석가의 마음에 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들이 거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들은 분석가의 정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전하게 내사될 수 있을 것이다(Bion, 1959, p. 103). 이것은 상당히 확장된 환상이며, 그것은 하나의 외적 대상을 포함한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경험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경험들은 일단 수정되면 재 내사될 수 있다. 그리하여 두개의 다른 환상 집단이 두 종류의 다른 투사적 동일시에 관련된다. 거친 축출의 형태로 내보내진 마음의 부분은 무의미한 것이며 전적으로 거부된 것이다; 대상의 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의사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특수한 질적 요소들이 있다: 기꺼이 전능을 포기하고자 하는 요소, 그리고 어느 정도 특정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의존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 요소가 그것이다.

비온은 이 의사 소통이 가능한 환상이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음(앞에서의 경우처럼)을 알게 되었다 - 대상은 항상 그 환자의 부분이 내면에 충분한 기간동안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환자는 대상(분석가)이 불안을 담아 주고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정신 기제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민하게 알고 있다.

### 사례: 속임 당한 환자

앞의 사례에서 다른 비온의 환자는 그가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그가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던 정신 기제였다고 끈질기게 암시했으므로; 분석은 그에게 그가 속임 당했던 정신 기제의 활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이 인상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환자 자신의 인격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는 그 공포를 분리하여 내 안에 집어넣었다. 이 생각은 만약 그것들이 거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허용되었다면, 그것들은 나의 정신에 의해 수정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안전하게 재 내사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때때로 나는 환자가 느

졌던 것을 내 마음에 가지는데 ...나는 그것들을 나는 재빠르게 비움으로 해서 그 감정들은 수정되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만약 대상—분석가 또는 어머니—이 이런 존재 상태를 허용하고 감당해 주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는 더욱 절박하고 폭력적으로 그것들을 내게 강요했다. 그의 행동은 분석 상황을 떠나서 본다면 일차적 공격성의 표현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의 투사적 동일시의 환상들이 폭력적일 수록 나에게 대한 그의 두려움은 더해 갔다. 면담 중에 이유 없는 공격성이 표현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 투사적 동일시의 등장은 단지 공격적으로만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는 이해해 주는 대상을 찾는 요구가 있다:

...나는 그것들이 환자를 다른 빛에서, 즉 그의 폭력적인 반응이 나의 적대적인 방어에 대한 그의 느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인용한다.

답아 주는 사람의 실패는 정신 발달에 있어서 잘못된 많은 경우들에 대한 이유가 된다. 그것은 무반응한 대상에 직면해서 촉발되는 공격성의 근원일 수도 있다. 분석가는 이 좌절로 인한 공격성—환자의 투사를 받지 못하는 그 또는 그녀 자신의 실패—을 공격할 것을 찾는 공격성과 주의 깊게 구분해야 한다.

사례: 답아 내는 데 실패한 환자

다음 사례에서 비운은 자신의 부분들이 수용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민감한 또 다른 환자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 면담은 ...날씨가 덥다, 자신이 탔던 기차가 만원이었다, 그리고 그 날이 수요일이었다 등의 서너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삼십 분이나 걸렸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미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으며, 이것은 그가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확인해 주었다.

비록 정신분열환자의 말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별 의미 없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는 미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했다. 그의 절망이 점점 더 커졌다:

잠시 후 그는 내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나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가 내게 집어넣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운은 그의 설명에 덧붙여서, 이 해석은 지난번 면담 자료에 의해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때 환자는 해석들이란 자신이 분석가 안에 집어넣기를 원했던 감정들을 축출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느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은, 지난번 면담에서 그가 나의 해석을 나에게 집어넣기를 원했던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축출 시도로 느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내 해석에 대한 그의 반응은 두 개의 개연성의 구름이 면담 공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 반응이 나의 해석에 대한 확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명히 분석가는 그 개연성의 구름은 바로 그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환자 주위의 공기 안으로 배출시켜 버린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불확실성(개연성)의 남은 부스러기—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분석가는 이 의미(환자의 불확실성)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나는 그가 나의 나쁨을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그것은 그가 내가 정말로 나쁜지 또는 그의 내부로부터 나온 어떤 나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그 환자가 자신이 환각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분석가는 되어진 말들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환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 두려움의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그것을 파편화시켰고, 마찬가지로 그가 불확실하게 느꼈던 대상을 파편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과 불확실성(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그의 정신의 한 부분을 배출시켰다; 나아가 그는 이번에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그를 담아 주고 이해하는 데) 그의 내면에 있어야 할 대상의 파괴를 경험했다:

분석 안에서 반복되는 이 불안은 이해의 능력에 대한 그의 질시와 증오가 좋고 이해심 있는 대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축출하는 데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었다.

면담 사례에서부터 가져온 이와 같은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안전감과 정신적 안정의 기초가 되는 좋은 내적 대상(좋은 대상과의 동일시를 보라. p. 71)이 하나의 특수한 기능—외적인 어머니 또는 분석가가 그렇게 하듯이 정서 상태를 담아 주는—을 가지며, 그 내적 대상은 어머니 또는 분석가의 정서 상태를 내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질시로부터 유래하는 파괴적 환상은 내면화된 담아 주는 대상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산산조각이 나는 불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접근이 불가능함으로써 생기는 좌절과 다른 공격성이다. 그러나 환자가 그의 손상된 내적 대상(내면에 있는 담아주는 대상)을 투사한다면, 그는 외적인 담아주는 대상이 실제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단지 자신의 내적 대상의 상태를 투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제 주어진 실제의 해석은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의심에 관한 것이다. 이 어려움이 분석가에 의해서 해석을 통하여 이해되고 수용된다—담겨진다.

### 이름 없는 불안

투사적 동일시의 거절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환자에게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준다:

만약 투사가 어머니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유아는 자신이 죽어 가고 있다고 느끼며 동시에 그 죽음의 의미를 벗겨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감당할 수 있게 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이름 없는 불안을 재 내사하다 한다(비온, 1962a, p. 116).

이 과정에서 비온은 의미를 더해 주거나 회복시켜 주는 대신 의미를 벗겨 버리는 특별히 박해적 대상—기괴한 대상—을 서술한다.

하나의 내적 정신 과정인 투사적 동일시는 역시 하나의 내적 정신세계를 지닌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의사 소통의 형태로 기능 하는 데 그 의사 소통은 비상징적인—언어 이전의 것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상징 이전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형태이다. 유아기의 아주 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유아가 대상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신적 삶이 시작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기초를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듯하다.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실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정신 발달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개념들을 혼동시킨다. 일반적인 개념은 신체적 지각의 초기 단계로부터 훨씬 후의 더 성숙한 단계의 다른 정신들에 대한 감수성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물론 이 단계에서는 신생아 정신이 지닌 실제의 성질에 대하여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만약 투사적 동일시가 축출로부터 의사 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맨 끝에는 공감,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 밑에 있는 투사적 동일시의 형태가 있다. 공감이 주체나 대상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 없이 발생한다. 이 경우 원시적 형태의 폭력성은 많이 완화되어 사랑과 관심의 충동에 의해 통제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감적 질문이 침범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질문을 받는 대상이 비협조적이라면 그 공감적 질문은 의도적인 침범으로 변할 수 있다. 투사적 동일시의 형태가 성숙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연속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공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폭력적인 원형
- 다른 정신과 의사 소통을 원하는 보다 호의적 형태
- 공감, 또는 누군가의 정신 안에 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폭력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속되는 과정은 이것이 우울적 자리 그리고 관심의 능력의 성취와 평행적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적 자리와 관심의 능력의 성취 이 두 단계들은 물론 연결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지금까지 다른 많은 사례들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공격성의 매우 초기적 변동에 관련된 클라인의 마지막 중요한 발견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점차적으로 사랑 충동에 의해 변화되고 사랑에 젖어 들게 되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 죽음 본능과 시기심

죽음 본능은 삶에 대한 증오이다.

잭 런던의 소설에서 마틴 - 자살 시도 - 물에 빠짐 - 자신도 모르는 사이 헤엄을 침- 헤엄 치기 중단- 입에 물이 잠기는 것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두 손을 휘젓- 살려는 의지구나 생각- 그 순간 자신을 경멸스럽게 느낌.

경멸 주체는 생명과 살려는 소망을 공격한다.

반복 강박을 통해 죽음 본능 이론을 세움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행동, 거기에는 상처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가 있음- 쾌락원리를 넘어 죽음 본능이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불쾌한 기억들을 반복하게 됨.

이러한 죽음 본능은 이전 상태로, 흠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으로 봄.

프로이트는 18개월 된 남자 아기를 관찰

장난감을 방구석이나 침대 밑에 던져 버리곤 다시 찾아내어 들어 올리는 것을 즐겼다. 아이는 장난감을 사용해 사라지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을 반복한다는 사실에 주목.-> 죽음 본능 또 하나의 가설로 어떤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루려는 시도이다. 즉 주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이다.

## 피터의 못된 성향

자기와 자기 동생을 나타내는 두 개의 작은 인형을 가지고 놀이함. 아이들은 못된 짓을 해서 엄마에게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함. 두 아이는 다시 나쁜 짓을 하고, 다시 벌을 받는 순환을 반복했다. 결국, 벌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강해지자 두 아이들은 엄마를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 그리고 작은 인형을 처형했고 그것을 칼로 잘라서 먹었다.

여기에서 벌주는 부모를 파괴함으로 나쁜 짓의 끊임없는 순환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아주 강한 불안이 발생했고 죽임당한 부모가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불안이 엄습하자, 아이는 그 두 인형을 부모가 찾지 못하도록 소파 밑에 숨겼다. 아버지와 엄마는 그 두 인형을 찾아냈는데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잘랐고, 엄마는 동생의 머리를 잘랐다. 이번에는 소년과 그의 동생이 요리되어 잡아 먹혔다. - 편집적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적 공격성은 죽음 본능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로 간주함.

이것은 공포스러운 불안을 다루려는 필사적인 시도이다. - 공격성이 먹는 것과 관련된 구강기 환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이것은 벌을 주는 초자아의 기원이 되는 초기 구강기 환상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시기심

1975년 클라인은 죽음 본능이 주체의 생명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주는 외적 대상을 증오하는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좋은 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좋은 것을 망쳐 버린다.

### 죽음과의 투쟁

클라인 환자의 꿈 - 기차 객실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여인이 밖으로 떨어질 것처럼 아주 위험하게 객실 문에 기대어 있었고 환자는 그녀의 허리띠를 꽉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 꿈에서 환자의 자기 부분과 내면에서 서로 투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부분은 살려는 소망에 반대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자살 충동처럼, 객차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충동.

뒷모습에 대한 연상-> 언니를 떠올림- 좀 더 깊은 연상 - 자신이 아직 어렸을 때 언니는 이미 남자들의 구애를 받고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고 그때 환자가 언니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느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드레스를 부러워했고 탐냈다고 했다.

이 드레스는 가슴선이 깊이 패여 젖가슴이 흰히 드러나 보였다. 환자의 환상 속에서는 처음부터 시기하고 망쳐버린 것이 엄마의 젖가슴이었음이 좀 더 분명해 졌다.

### 질투심

죽음 본능이 시기심으로 이동은 긴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뒤따라오는데 그것은 파괴 대상이 생명의 원천보다는 경쟁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꿈에서 파괴성은 미모로 인해 구애 대상이 되는 언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바뀌었다. 시기심이 지나치지만 앓는다면 질투심은 시기심을 어느 정도 대신함으로써 시기심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좋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공격성의 한 형태이다. 언니가 아름답다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단계가 진행되면서 호의적인 상황일 경우 건강한 경쟁을 향한 또 다른 발달적 진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사랑 충동은 공격충동을 더 많이 완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파괴성의 변화과정은 투사적 동일시가 폭력적 축출로부터 의사소통을 위한 형태로 변화되고 마침내 공감 능력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돕는다. 이 부분이 실패할 경우 전능성과 파괴적인 측면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조직화된다.

- 리비도 철수는 극단적인 자기 몰두 상태가 된다. 분열증, 우울증 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관념, 감정, 기억, 가치, 기분에 관해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관심의 상실 또한 일어나며 자신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마치 상실한 그 사람인 양 느낀다.

상실한 사람의 관심이 포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달 걸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은 조금씩 포기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우울증 환자는 이 전체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 특별히 강한 양가감정이 있다. 강력한 공격성과 증오가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소한 거절이나 경멸조차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상실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증오하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거기에 머무른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자기 증오이다. 이 자기 증오는 예전에 대상에게 돌렸던 동일한 비난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대상은 이제 내면으로 옮겨져서 자기 인격의 한 부분으로 된 것이다. 이때 개인의 정체성은 증오했던 대상을 받아(내사)들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방식

1. 말로 회상하는 것
2. 실제 과거의 사건이나 환상들을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이의 발달을 가로막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석가에게 전이되는 것은 실제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적환상 안에 있는 부모 형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분석가가 어떻게든 긍정적인 전이를 얻으려고 하면 아이는 자신의 분열된 적대감을 주변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다른 관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질적 갈등인 박해적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분석되지 못한 채 남기 쉽다는 것이다.

그녀의 치료접근 방법이 목표는 어른처럼 자아를 강화 시키고 초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인물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내적 인물들과 연결된 불안과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

고통스럽거나 금지된 기억 충동 또는 환상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되어 있지만, 무의식 속에 역동적인 힘으로 남아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증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증상은 억압된 생각 및 감정과 억압하는 힘 사이에 타협에 산물이다.

억압된 성은 정상적인 성기기적이고 이성애적인 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성인의 성생활에서 성도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학피학성과 구강기적 항문기적 요도기적 관음증적 노출증적 충동들을 포함한 양성적이고 매우 왜곡된 다양한 형태를 띤다. 프로이트는 성이 단순히 하나의 성분능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여러 가지 구성들의 혼합물이란 결론을 내렸다.

성욕이 발생하는 신체 영역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구강기적 본능은 먹는 기능에서 나오고 성욕이 일어나는 항문기적 본능은 배변과 방뇨에서 그리고 성 본능은 재생산 기능에서 나온다. 이러한 필수적인 욕구에 만족은 성적 자극과 쾌락을 일으키며 그 후에 성적 자극과 쾌락은 그 자체로서 추구된다. 유아의 첫 본능적 욕구는 먹는 것이다. 따라서 구강기적 본능이 먼저 자극되고 입은 최초의 성감대가 된다. 어머니 젖가슴을 빠는 것은 모든 성적 생활의 출발점이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환상이 발생하며 이것은 후기의 모든 성적 만족을 위한 초기 형태이다. 구강 활동에 우월성은 아이가 괄약근에 통제능력을 발달시키기 시작할 때 항문 활동에 우월성으로 이어진다. 대변의 보유 및 배출 항문 삽입 등은 유아의 성적 경험이 중심이 된다.

프로이트는 나중에 항문기와 성기기 사이에서 3세에서 6세 사이에 남근기를 추가했다. 이 시기에 남아에게 있어서 성기기는 건강과 쾌락의 자리이다. 아이는 남근기를 유일한 성적 기관으로 보고 여성의 성을 모르는 채로 어머니가 자신이나 아버지와 같이 남근을 가진 남근 여성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프로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아이의 리비도 발달은 후반기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의 세 단계를 거치며 성이 온전히 구별되는 성기기는 사춘기에 가서야 확립된다.

구강기적 본능에 목표는 젖가슴을 파는 것과 삼키는 것이고 이대 적합한 대상은 젖가슴이며 항문기적 본능에 목표는 배설과 참기이고 그것의 대상은 대변이다. 남근 기적 본능에 침투하는 자르는 모습들이다.

리비도의 특성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목표와 대상을 옮길 수 있다. 한 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될 수 있고 그 기능을 취할 수 있다. 즉 환상에서, 항문은 입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페니스는 구강기적 욕망의 대상인 젖가슴을 대신할 수 있으며, 대변은 페니스나 아이로 대체될 수 있고, 아이는 페니스 등을 대신할 수 있다. 리비도는 보통 구강기에서 항문기, 남근기 그리고 성기기 단계로 발달한다. 하지만 각 단계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은, 프로이트가 "고착"이라고 부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리비도의 한 부분이 전성기기적 (pre-genital) 단계에 고착되고, 그 단계의 목표들과 대상들에 결부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기기의 조직은 약하고 불안정하며 이전의 단계로 퇴행-고착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프로이트의 견해로는 이렇게 전-성기기 단계에 속한 조직으로의 환원은 성인 신경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구강기적 본능은 탐욕이나 지식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항문기적 본능은 강박적인 성격 특성이나 긍정적 측면에서 질서를 잘 지키거나 청결한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욕망의 대상 또한 발달을 거친다. 프로이트의 견해에서 완전한 의미의 성적 대상은 후기 항문기나 남근기까지는 심리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구강기적 본능은 처음에는 그 대상으로 젓가슴을 갖지만, 곧 성적 대상으로서의 젓가슴은 포기된다. 아마도 그것은 유아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체-성애를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유아는 손가락이나 입술을 빠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몸에서 만족을 구한다. 본능은 만족을 발견하지만, 대상을 갖지는 않는 것 같다.

프로이트는 또한 양성애, 즉 모든 인간은 남성적인 성적 욕구와 여성적인 성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년은 따라서 긍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덧붙여서 부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남아는 아버지를 성적으로 욕망하고, 어머니를 자신의 경쟁자로 삼는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 성적으로 침투되고 소유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욕망의 성취는 남성적인 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동성애적 욕망 또한 억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동성애적 소망은 이성애적인 소망보다 더 철저하고 영구적으로 억압된다. 여아 또한 남근기 단계를 거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아는 질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그녀에게 있어서 음핵은 페니스와 유사하게 성애의 주요한 부분이다.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아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격 발달에서 전환점이 된다. 억압이 시작되는 것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의 관련에서이며, 전성기기적 단계로 퇴행하는 것도 오이디푸스 불안에 대한 방어로서이다. 이 순간 모든 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공포증, 강박증, 그리고 다른 증상을 만드는 방어기제들을 발달시킴으로써 일시적인 신경증-유아 신경증—을 겪는다. 성인 신경증은 이러한 유아 신경증으로의 퇴행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된 결과로 초자아가 형성되고, 개인의 기본적인 정신구조 또한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아이는 아버지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듦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아버지는 심리내적 실제 안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동일시해야 할 인물로 자리 잡는다.

우울증에서의 자기 질책은 사실상 자기와 내면화된 아버지 사이의 상호 질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우울증 환자는 이 내적 인물-"자아에 비추이는 대상의 그림자" 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양가감정 속에서 지나친 미움을 갖는 내적 상태가 우울증 환자가 지닌 병리이다.

[초자아가 미움을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한다.]

"자아와 원본능"에서 프로이트는 자아 이상이 초자아와 구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아 이상의 기능 또한 초자아에게 돌린다. 자신에 의해 사랑받고 승인받으려는 자기애적 목표는

이상적인 내적 부모, 즉 초자아에 의해 사랑받고, 승인받으려는 욕망으로 통합된다. 자아는 책벌의 두려움과 사랑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초자아의 요구에 따르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초자아의 형성 과정에 개입한다.

[초자아는 사회적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

원본능의 유일한 목표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능한 환각 소원 성취에 매달린다. 원본능으로부터 자아가 출현하며 자아는 현실과의 접촉을 통하여, 원본능과 현실 사이를 이어준다; 그것은 원본능의 바깥 껍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실원리를 따른다. 그것은 인식 장치이고, 움직임의 기능을 통제하며, 고통스러운 좌절을 주는 현실을 배우고, 현실을 평가하며, 만족을 얻기 위한 현실적 수단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또한 내적 상태를 인지하는 심리적 구조이다. 초자아가 형성될 때, 자아는 원본능과 현실을 중재할 뿐 아니라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를 중재한다. 자아는 외적 실재와 내적 실재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리비도(생명본능)에 반대되는 세력은 이전 상태, 즉 궁극적으로는 무기물의 상태로 돌아가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요구에서 나오는 죽음본능이다. 그것의 심리적 대응물은 열반의 원리와 같은 고통이 없는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하지만 유기체는 죽음본능에 의해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밖으로 투척한다(프로이트가 이전에 강조했듯이, 본능은 그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밖으로 투척되어 대상으로 향하면, 죽음본능은 공격성으로 변한다 : "내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 죽는 것이 죽이는 것으로 변한다.

그는 본래 공격성을 좌절에 의해 작동되는 자기 보존적인 자아본능으로 간주했지만, 점차 근본적인 내적파괴 충동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생명본능과 리비도처럼 기본적인 죽음본능의 투척은 심리적 삶에서 공격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에로스(성애를 포함한 생명본능)와 타나토스(자기 파괴를 포함한 파괴 충동)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은 양가감정과 불안, 그리고 죄책감의 가장 깊은 근원이다. 하지만, 두 가지 기본적인 본능이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또한 합쳐진다. 이런 융합에서 죽음본능이 지배적일 때 그것은 가학피학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생명본능이 지배적일 때 공격성은 생명력에 봉사하고, 자아 동조적(ego-syntonic)이 된다. 즉 그것은 자아에 봉사한다.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성은 초자아에게로 옮겨지며, 따라서 초자아는 잔인한 공격성의요소를 갖게 된다. 프로이트는 본래 유아기의 성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1920년 이후 공격성이 죄책감의 주요한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억압되어 죄책감으로 변형되고, 초자아가 되는 것은 결국 공격성뿐이다.

억압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억압을 일으키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할 때의 주된 불안은 거세불안이다. 이 시기의 소년은 그의 성적 소망에 대한 책벌로서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를 거세할 것이라는 환상과 두려움을 갖는다. 여성 성기의 발견은 이 불안을 강화시킨다. 페니스가 결여된 여성 성기는 아이들이 보기에 실제로 거세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

한 확인인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에서 주된 요소는 거세불안이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공포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실제의 불안은 외적 위험에 대한 반응이다. 출생 외상에서 초기의 형태를 형성하는 불안은 내적 욕구와의 충돌에 직면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이고, 다른 발달단계에서 다른 위험 상황에 의해 다시 일깨워진다. 그는 각각 다른 단계에 속하는 대상의 상실, 거세 공포, 초자아의 불안 그리고 대상이 베푸는 사랑의 상실과 같은 네가지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대상의 상실이나 대상이 베푸는 사랑의 상실, 그리고 거세 공포의 경우, 그 공포는 본능적 욕구에 압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본능적 욕구는 생명본능과 죽음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방출(discharge)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자아 불안의 경우, 공포는 초자아의 공격에 직면한 무기력함에 대한 공포이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압도되는 "외상적 불안과 외상적 불안의 위협을 경고하는 "경고적 불안"을 구별한다. 실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공포와 관련해서 자아는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위협적인 내적 위험에 대한 경고 불안이 나타날 때, 자아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발동시킨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 억압을 발견했고, 그것을 방어기제로 설명했지만, 강박신경증 연구에서 다른 방어기제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를 예로 들면, 감정이 사고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이것은 강박증인 사람의 경우, 불안이 만들어내는 사고가 의식 안에 머무르는 반면, 감정은 억압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클라인은 여러 방어기제들 중 투사, 내사, 동일시, 그리고 자아의 분열,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가운데 투사와 내사는 자아가 원본능으로부터 발달하고 계속해서 쾌락 - 고통 원리의 지배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쾌락 자아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 "본래의 쾌락 자아는 좋은 것을 모두 자신 안에 내사하고, 나쁜 것을 모두 방출시키려고 한다." 투사는 편집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방어기제이다. 여기에서 주체는 자신의 충동들을 대상에게로 돌린다. "난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그가 나를 미워한다." 페렌찌가 처음 사용한 내사라는 용어는 투사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내사는 대상을 먹으려는 가장 초기의 구강기적 충동의 정신적 표현으로서 대상의 특성을 마음 속으로 들이는데 사용된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내사를 우울증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후에 그는 내사가 정상적인 발달의 한 부분이고, 자아는 대상을 내사하지 않고는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동일시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는 대상을 모델로 사용하여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주체는 대상의 특성들과 동화한다; 그리하여 동일시는 대상의 상실이나 대상과의 경쟁에 맞서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 부모와의 동일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다른 유형의 동일시는 자기애적 대상 선택이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모델이 되고, 자신의 특성을 대상에서 찾는다.

자아의 분열은 프로이트가 이성의 의복 등에 집착하는 성욕도착 (fetishism)과 정신병의 경우에서 관찰한 방어기제이다. 어떠한 방어기제라도 일단 사용되면, 자아는 어느 정도 분열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방어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자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  
우울증 병리는 자신의 부모를 미워하는 가혹한 초자의 징벌이다.

「어린이 정신분석」의 “초기 분석 기술”에 대한 장에서, 클라인은 어린이 놀이가 지닌 상징적 의미와 그것을 분석하는 자신의 기술을 설명해 주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억제되어 있는 네 살 된 피터는 다른 아이들, 특히 형제와 잘 지내지 못하고, 때로는 냉소적이며 공격적인 아이였다. 첫 면담 초기에 피터는 장난감 마차와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일렬로 놓았다가 다시 옆으로 나란히 놓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이 사이에 피터는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가져서 하나에 다른 하나를 충돌시켰는데, 그 결과 말의 발이 서로 부딪쳤다. 그리고 그는 “내게는 프리츠라고 하는 새 동생이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마차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단하기를, “그것은 좋지 않아요”라고 했고, 즉시 부딪치기를 멈추었다. 그러나 그 놀이를 곧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장난감 말 두 마리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부딪쳤다. 나는 “자, 말들은 서로 부딪히는 두 사람이구나”라고 말했다. 처음에 아이는 “아니야, 그건 나빠요”라고 했지만, 곧 “그래요, 그건 서로 부딪히는 두 사람이예요”라고 말하고는 “말도 서로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려고 해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벽돌로 그것들을 덮고는 말했다.  
“그것들은 다 죽었어요. 내가 묻었어요.”

피터와의 첫 면담에서 클라인은 그의 장난감들이 사람을 상징한다는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 면담에서 피터는 그네 두 개를 마주 보고 흔들리게 해놓고는 사람이 앉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게 어떻게 서로 부딪히는지 봐요”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여기서 두 그네가 서로 “찌찌 (thingummies, 성기를 부르는 아이의 언어)”를 부딪히는 아빠와 어머니라고 해석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하며, “아니, 그건 나빠”라고 반복하다가 놀이를 계속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찌찌를 부딪치는 거야”라고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동생에 대해 말했다. 첫 면담에서 마차 두 대와 말들을 부딪친 뒤에도 새 동생이 생겼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클라인은 아빠와 어머니가 서로 찌찌를 부딪치면 동생이 태어난다는 아이의 생각에 대해 해석했다. 계속되는 상담에서 아이의 놀이는 발전해서, 그 성관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후에 갑자기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더욱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양성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냈다. 이미 첫 면담에서 화를 내고 장난감을 두드리며, “그들은 죽었어요”라고 표현한 것에서 부모와 형제가 죽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인은 1946년 영국 정신분석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의 치료기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처음 분석을 시도한 아이는 다섯 살 된 프리츠(Fritz)였다. 1920년에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아이를 분석했다.

첫 분석에서 그녀가 세운 목표는 성인을 분석할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아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으로 끌어내는 것, 성인을 분석할 때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해석의 규칙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전이뿐 아니라 부정적인 전이에도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때로 매우 불안해했는데, 클라인의 해석이 그 불안을 활성화시켰다.

그녀는 그 불안의 근원을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했다. 어떤 때는 아이의

불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녀도 역시 불안하고 불확실해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격려에 힘입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 그리고 실제로 해석 후에 아이의 불안은 감소했다. 분석기간은 짧았지만, 치료결과는 좋아 보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례는 1923년에 두 살 9개월 된 밤공포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리타(Rita)라는 아이의 분석사례였다. 그녀는 이 분석을 아이의 방에서 아이의 고모와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했다. 첫 상담에서 아이는 몹시 불안해하며 클라인과 함께 방에 있지 못하고, 뜰로 뛰쳐나갔다. 클라인은 리타에게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할까봐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이 두려움을 아이의 밤 공포증과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그녀는 리타의 부정적인 전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 후에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클라인과 놀이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이의 집에서는 분석작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장소를 자신의 상담실로 옮겨 진행했다.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었다. 그녀는 성인 분석에서처럼 어린이 분석이 집과 가족을 떠난, 적당한 정신분석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에 이어, 그녀는 다른 어린아이를 분석했는데 이때 특별한 인형을 사용하는 기법을 발달시켰다. 그녀는 아이에게 분석 상담에서 사용할 장난감이 담긴 상자를 주었다.

1923년에 그녀의 어린이 분석 원리와 기술은 완전히 확립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적합한 정신분석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

아이의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 - 한번에 50분, 일주일에 5회 상담을 했다. 방은 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다. 아주 단순하고 튼튼한 가구와 아이와 분석가를 위한 작은 탁자와 의자, 그리고 작고 긴 의자가 마련되었다. 바닥과 벽은 닦아낼 수 있는 재질로 꾸며졌고, 아이들은 각각 자신의 장난감 상자를 가졌다. 장난감은 조심스럽게 선택되었다. 작은 집들과 두 가지 크기로 된 남자, 여자, 농장과 들짐승, 벽돌, 공, 작은 공깃돌, 가위, 실, 연필, 종이 찰흙과 같은 놀 거리가 있었다. 이외에도 물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분석에서 흔히 물놀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자유로운 놀이는 성인 분석에서 자유연상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장난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장난감이 놀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성인 분석에서 분석가가 연상의 주제를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장난감도 놀이의 주제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난감이거나 병정 장난감처럼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장난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 모습의 장난감은 아이와 어른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크기로 되어 있지만, 특징은 없다. 제복이 나 특별한 옷은 물론, 직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것도 안 된다. 장난감은 그 크기가 매우 작다. 이것은 클라인의 직관적인 선택이었다. 아주 작은 장난감들은 놀이 분석에 특히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아마도 작다는 것이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클라인은 아이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강박증, 갈등, 환상들을 표현한다고 간주했다. 그녀의 기술은 꿈과 자유연상을 분석하는 것과 똑같이 놀이를 분석하고, 놀이에서 표현된 아이의 환상, 갈등, 방어기제들을 해석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때때로 아이가 그리는 그림들과 그것에 대한 연상들은 특히 교훈적이다.

안나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접근 방법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으며, 둘 사이의 논쟁은 1927년 어린이 분석 심포지엄에서 절정에 달했다. 안나 프로이트는 헬무트와 같이 아이

는 전이를 발달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환자가 과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감정과 환상들을 분석가에게 옮겨 놓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달한 갈등이 전이 신경증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안나 프로이트는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전이가 일어날 수 없다 : "옛 대상의 영향력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린이 분석은 초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석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이어야 하며, 부정적인 전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이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는 긍정적인 전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클라인은 아이가 성인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갖지는 못하지만, 심한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적어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인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안나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반대로, 그녀는 아이에게 있는 불안과 일반적인 의존의 경향성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분석가에게 빠르고 강한 전이를 발달시킨다고 생각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이의 발달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가에게 전이되는 것은 실제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적환상 안에 있는 부모 형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아이의 내적 세계와 분석가에게 전이된 내적 형상의 본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내적 부모는 종종 이상적이고 매우 나쁜 형상으로 분열되어 있다. 아이는 분열이라는 정신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따라서 부모의 이상적, 박해적 측면이 분석가에게 전이된다.

클라인은 정신분석 안에 교육적 수단이 끼어들 자리는 없으며, 그것은 정신분석 과정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분석 상황은 분석적 수단에 의해서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만일 긍정적 전이를 얻기 위해 교육적 수단과 같은 비분석적 수단을 이용한다면, 분석 상황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없다. 그녀는 또한 분석가가 어떻게든 긍정적인 전이를 얻으려고 하면, 아이는 자신의 분열된 적대감을 주변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다른 관계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질적 갈등인 박해적 초자아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분석되지 못한 채 남기 쉽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를 통해 형성된다. 그 전에 아이는 실제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한다. 부모의 금지에 대한 내사와 내적 권위의 형성 -초자아-은 잠재기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준다. 어린아이의 초자아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것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이론적 개념은 안나 프로이트의 견해와 기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클라인은 어린이에 대한 임상적 관찰에 근거하여 어린아이를 두렵게 하고 별주는 내적 부모와 아이의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특히 가학적인 초자아가 어린이들의 환상 안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어린이 분석에서도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아를 강화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초자아의 분석을 통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아의 성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치료적 접근방법의 목표는 초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인물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내적 인물들과 연결된 불안과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초기의 아동 연구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관찰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네 살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고, 여섯 살 경에 절정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클라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더 어린아이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예를 들면, 리타의 경우 두 살 9개월에 부모의 성교에 대한 환상을 가졌으며, 환상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밤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어머니가 그녀를 박해하는 위협적인 악몽과 밤에 대한 공포를 형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클라인은 초자아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리고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정체'가 아니라 본질적인 오이디푸스적 콤플렉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공격을 가한 리타에게 보복하는 어머니의 위협적인 모습은 초자아의 초기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클라인은 자신의 연구에서 아동의 삶이 부모의 성(性)에 대한 무의식적인 환상이나 또는 의식적인 환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좌절, 질투, 시기심 등은 아동의 오이디푸스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가학적 공격을 초래하고, 아동의 초기 초자아를 구성하는 위협적인 형상을 만들어 낸다. 클라인은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 자체가 전성기기적 형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이디푸스 충동이 강력한 것은 성교적 환상-성교로 결합한 부모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도 발달단계에 따르면, 아이는 구강기에 서로 먹여주고 빠는 성적 만족을 교환하고, 항문기에는 소변이나 대변을 교환하고 항문성교 등을 통해 성적 만족을 주고받는 부모를 상상한다. 이러한 환상은 실제적인 오이디푸스 질투와 시기심을 강화시킨다. 특히 문제가 있는 아동은 전성기기적 형태가 그의 심상을 지배한다.

에레나(Erena)의 예를 보자. 여섯 살 된 여자아이 에레나는 심한 강박신경증을 앓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의 환상은 구강기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항문기-가학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치료 초기에 그녀는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을 서로 부딪치면서 그들이 내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레나는 곧이어 세 번째 인물작은 남자 인형)이 그들 두 사람을 치어 죽이고, 구워서 먹었다고 말했다. 이때 작은 남자 인형은 에레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녀의 많은 놀이가 부모의 형상을 구워 먹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러한 놀이 가운데 에레나의 가학적 식인 충동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종이를 자르면서 다진 고기 속을 연상했으며, 종이에서 피가 나온다고 연상했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어떤 때에는 "눈알 샐러드(eye-salad)"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면서 클라인의 코끝을 잘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놀이는 에레나가 가학적이고 식인적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를 공격하고 있으며, 또한 전이에 의해 클라인을 공격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아버지의 페니스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놀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긴 황금색 물건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항문기적 환상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부모의 성교를 대변을 보는 것으로 상상했고, 환상 속에서는 자신의 대변을 더럽히고, 태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독으로 사용하였다.

리타는 클라인의 환자 가운데 가장 어린 환자로서 이러한 환상과 공포가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리타는 세 살이 조금 안 됐을 때 명백한 신경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놀이는 위축되었고 그녀는 꾸짖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극심한 죄의식과 불안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놀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인형이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분석에 의하면, 초기에 리타는 자신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여러 물건들 중에서 아기 인형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훔쳐내고 싶었던 어린 남동생을 의미했다. 실제 어머니는 놀이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내사된 누구, 즉 리타를 실제보다 훨씬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그 누군가에 의해 어머니가 되는 놀이는 금지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강박증세로 리타가 두 살 때부터 잠들기 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잠들기 의식이 생겼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요한 점은 리타가 잠옷을 꼭 움켜잡고, 생쥐 혹은 찌찌(Butzen)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찌찌를 문다고 했던 점이다(리타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증세와 특징적인 발달을 통해 거세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그녀의 놀이에서 역시 분명하게 아버지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남성의 성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가 거세불안으로부터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리타의 이러한 잠자리 의식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모든 것은 그녀의 강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어느 분석 면담 중에는 장난감 코끼리를 그녀 인형의 침대에 눕혀놓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침실에 가서 "부모에게 무슨 일을 행하거나 그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다. 코끼리는 그녀가 한 살 3개월이었을 때부터 두 살 때까지 느꼈던 충동, 즉 아버지와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어머니의 뱃 속에 있는 아기를 훔치고, 부모를 모두 함께 상해하고 거세하고 싶었던 욕구를 금지하는 그녀 속에 내재화된 부모의 역할을 상징하였다. 침구에 꼭꼭 싸 놓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신의 공격 충동이 일어나는 것과 그 공격 충동이 표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계속해서 리타는 이러한 충동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충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자면, 그녀는 아버지를 거세하려고 했던 소망에 대한 벌로써 찌찌 (아버지의 페니스가 자신의 찌찌를 물어뜯거나 상처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놀이에서 그녀는 인형에게 벌을 주곤 했으며, 다음엔 분노와 공포를 폭발시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두 부분, 즉 처벌을 가하는 힘과 스스로 처벌을 받는 힘, 이 두 부분과 더불어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놀이는 또한 아이의 불안이 실제 부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으로 내사된 부모상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초자아라고 부르는 것과 상응한다. (내 견해로는 아이의 초기 동일시 과정은 이미 "초자아"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에레나는 어머니로부터 가혹하게 박해받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적 조치들, 좌절, 즐거움, 그리고 어머니가 즐기는 모든 쾌락까지도 자신에 대한 박해와 벌로 간주하였다. 그녀는 "약탈하는 여인"이 "자신의 모든 물건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가학적인 환상이 지닌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녀의 초자아의 특성을 반영한다. 초기 연구에서부터 클라인은 아이에게 커다란 의식적, 무의식적 불안이 있고, 강력한 방어기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이의 끊임없이 위협적인 내적 형상에 의해 파생된 불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부모상을 분리하고 외부로 투사하며, 이상적인 부모상을 내사하는 것은 억압(기제) 이전에 사용되는 훨씬 더 강렬한 방어기제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모두가 어린이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아이는 내적 박해자와 자신의 가학성 모두를 강력하게 방출하거나 투사하며, 투사된 박해자와 자신의 가학적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투사와 내사 과정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들은 점차 이상적인 내적 세계를 건설하고, 가학적 대상과는 분리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실제 부모에 대한 지각을 착색, 왜곡시킨다.

프로이트는 성인 안에서 억압된 아이를 발견하였다. 클라인은 아동 연구에서 이미 유아기에 억압된 유아를 발견하였으며,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아이는 이미 억압된 구강기적 부분 대상과의 무의식적인 관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로이트는 유아의 초기(대상)관계는 젖가슴이라고 가정했으며, 아브라함은 특히 우울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젖가슴이나 대변과 같은 부분 대상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클라인은 젖가슴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유아의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내사된다고 기술했다. 세월이 가면서 그녀에게 '대상'이란 용어는 프로이트가 가졌던 개념과는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대상을 본능적인 대상으로 본 반면 클라인은 그것을 좀더 유아적인 대상으로서 본능적 충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으로서 보았다. 또한 유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은 심리적인 특징, 즉 성격을 나타내며 : 이것은 전체 대상뿐만 아니라 부분 대상에도 적용된다. 그 부분 대상들은 사랑하고, 증오하며, 탐욕과 시기심에 찬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인간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의 부분 대상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클라인의 후기 작업에서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 사이의 관계와 특성의 구분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녀는 아동기 초기의 빠는 단계 다음에는 가학적이고 식인적인 단계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젖가슴은 항상 좋으며, 가학성과 양가감정은 나타나지 않고, 후기 구강기 단계에서 양가감정이 나타나며, 이것 때문에 분리하고 투사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보았던 것 같다. 어쨌거나 한편으로 클라인은 초기부터 아이는 환상 속에서 젖가슴을 내사하고, 끊임없이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여, 좋은 젖가슴은 받아들이고 나쁜 젖가슴은 내보내거나 없애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후기 구강기 동안 나타나는 젖가슴에 대한 식인적인 관계는 곧 페니스로 전이된다. 예를 들면, 잉가(Inga)는 잠재기에 있는 여자아이로 젖가슴과 페니스 모두에 대해서 구강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놀이를 하곤 하였다. "놀이는 점점 더 진전되어 잉가는 나를 손님으로 대하고, 나에게 내 아이들이 먹을 것을 파는 놀이를 즐겼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아버지의 페니스와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녀의 가장 깊은 구강기 욕구의 대상이며, 구강기적 좌절감이 그녀의 핵심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특히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페니스는 젖가슴처럼 이상적인 것과 매우 나쁜 것으로 분리될 수 있다.

에레나는 매우 나쁜 페니스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황금물건"이라는 좋은 페니스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다. 리타도 박해하는 "찌찌(Buzen)"뿐만 아니라 매우 갖고 싶은 "찌찌"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다. 가학적이고 식인적인 환상과 불안은 젖을 떼는 이유기에 더욱 악화하여 아동의 관심이 어머니의 온몸으로 옮겨가고, 원시적인 오이디푸스 시기심과 질투

가 구강기적 가학에 첨가되어 클라인이 말하는 최대 가학단계에 이르게 된다.

다른 모든 가학적 공격 체계는 항문기적 가학성에서와같이 처음에는 좌절감을 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향한다. 이 공격성은 곧이어 매우 강하고 효과적인 가학적 도구가 되어 어머니의 신체 내부로 향하게 된다. 어린아이의 분석에서 파괴적인 항문기 가학적 욕구는 어머니의 신체를 삼키고 오줌을 싸서 파괴하려는 욕구와 번갈아 나타난다. 그 중에 어머니의 젖가슴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는 항상 식별될 수 있다."

아동의 원시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함으로써 클라인은 아동의 콤플렉스 안에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밝혀냈으며, 풍부한 환상과 불안이 어머니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아이의 환상 속에서 어머니의 신체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는 어머니의 신체 안에 젖, 음식, 가치 있고 신비로운 대변, 아기 그리고 성교를 통해 어머니와 결합되는 아버지의 페니스 등이 있다고 상상한다. 어머니의 신체는 아이에게 그것을 탐험하고 싶은 충동과 성적 충동, 풍요로움을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더불어 시기심과 증오심까지도 부추긴다. 환상 속에서 유아는 어머니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흠치고, 탐욕스럽게 공격하며, 욕망보다는 증오에 더 가까운 질투심으로 가득 차 어머니의 신체를 파괴적으로 공격한다. 이러한 공격 때문에 어머니의 신체는 욕망과 질투뿐만 아니라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 시기심이 에레나 신경증의 핵심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레나의 분석 초기에 그녀가 "제 3의 인물"이 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공격한 것은 어머니의 신체와 어머니의 뱃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공격적인 충동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충동은 어린 소녀의 구강기적 질투에 의해 자극되었으며, 그녀의 놀이 중에 배(어머니)를 물속에 빠뜨리고, 선장(아버지)에게서 "긴 황금빛 물건"과 물 위에 떠 있던 그의 머리를 잡아 떼어 놓는,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교할 때 아버지를 거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격 환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머니의 신체에 대한 공격성, 즉 아이의 가학적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에레나는 대변을 신체 내부를 파괴하는 위험하고 폭발하기 쉬운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파괴되며 그 안에서 사람이 "폭발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종이를 자르는 것은 - 조각 내고, 눈알 샐러드(eye-salad)를 만들어 - 성교 중인 부모를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에레나가 내 코를 물어뜯어 조각 내고자 한 소망은, 동시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된 아버지의 페니스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다 (다른 분석에서도 역시 아이들은 - 그것이 환상에 의한 것이든 실제이든-내 코와 발, 머리 등 내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 공격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내 몸의 한 부분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페니스, 혹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을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에레나는 환상 속에서 다른 물건 (즉 배설물, 아기 등)을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 어머니의 신체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물고기 아내(어머니와 나 (그녀 자신) 사이에 모든 수단이 동원된 필사적인 투쟁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에레나는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발달시켜서, 그녀와 경찰이 함께 돈 또는 물고기를 놓고 다투는 사이에 어떻게든 내가 그 물고기를 훔치려고 시도했다고 상상했다. 성교 중에 있는 부모를 목격하는 것은 어머니의 몸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버지의 페니스와 다른 모든 것을 훔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훔치고, 철저히 파괴하려는 의도에 대한 에레나의 반응이 물고기 아내와 싸운 후에 여자 도둑이 그녀 내부

에 있는 모든 것을 훔쳐갈 것이라는 공포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자아이가 초기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공포라고 기술해던 것이고 나는 이것을 남자아이의 거세불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학습장애와 어머니와의 가학적 동일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초기단계" (1928, Writings I)를 참고하십시오)

이러한 불안은 부분 대상인 어머니의 신체나 아버지의 페니스와 관련된 박해 공포이며 아동기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불안으로서, 클라인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보았던 것이다. 이 불안을 다루는 기제는 복잡하다. 실제 부모를 좋거나 나쁜 측면으로 분리하거나 이상화하며, 악몽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이상적이고 좋은 부모가 불안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내사될 것이다. 아동은 어머니의 몸을 복구하고 회복하여 불안을 자극하는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그의 관심을 주변 세계로 옮겨가고, 외부 세계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불안은 정신병적인 성질을 띤다. 클라인은 정신병의 고착점이 구강기와 초기 항문기 시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좀 더 나아가 이러한 공포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증거를 발견했으며, 유아 신경증 자체를 정신병적인 성격을 띤 불안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구조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그녀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것과는 다르다. 프로이트는 유아 신경증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불안으로부터 생기며, 이 거세 불안이 무엇보다도 전·성기기적 단계로 퇴행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기본적인 불안이 구강기나 항문기 그리고 어머니 몸과의 초기 관계와 연관된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또한 유아 신경증, 공포증, 강박증 등을 정신병적 불안에 대한 근원적인 방어체계로 보았다. 그러므로 리타의 잠자리 의식이나 에레나의 복잡한 강박증도 가학적 충동과 정신병적 편집 불안을 일으키는 내적 충동과 내적 가해자를 통제하려고 고안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아 신경증은 아동들에게 일어나므로 사실 아동 신경증으로 불러야 한다. 클라인은 아동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유아의 불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이가 어머니의 몸과 관련해 자신의 환상과 불안을 다루는 방법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초기 오이디푸스 소망과 불안은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몸이나 아버지의 페니스와 관련된다.

아버지가 좀더 분리된 인물로 지각될 때(아버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 아동의 환상은 클라인이 말한 결합된 부모상을 만들어낸다. 이 환상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단순히 어머니 속에 있는 페니스로서만 지각되지 않으며, 성교를 통해 하나로 결합된 부모상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결합은 부모의 성교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합에 대한 증오는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이 형상에게 부모의 성교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투사한다. 이것은 증오스럽고 무서운 형상, 즉 아이의 악몽이나 공포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머리와 다리를 가진 귀신 환상의 기초가 된다. 아이는 성교 중인 부모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결합한 것이거나 부모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이 원색장면(아동의 지각이나 부모의 성교 환상)을 항상 가학적인 것으로 느낀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라인은 이에 대해 결합된 부모상은 가학성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그 까닭은 아동이 그것을 증오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클라인은 1934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후에 밝혔듯이 증오하는 것으로 지각된 것이 동시적으로 증오스런 형상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성인의 신경증을 연구한 프로이트는 성인 안에서 어린아이를 발견하였고, 클라인은 어린이 안에서 유아를 발견하였다. 클라인은 연구 초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주 일찍 나타나며, 그 속에는 전성기기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클라인은 어머니의 몸이나 젖가슴에 대한 아동의 초기 관계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초기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1932년 「어린이 정신분석의 마지막 두 장에서 그녀는 성인과 어린이 정신분석 경험에 근거하여 양성 모두 처음에는 욕망의 대상이 어머니의 좌절된 젖가슴으로부터 아버지의 페니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남자아이의 경우 이것이 후에 동성애 경향의 근원이 되나, 그가 원하는 페니스를 수용하여 동일시함으로써 좋은 이성애 발달의 근원이 된다. 반대로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페니스에게로 구강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남성의 성기를 수용하는 길을 열게 된다. 이렇듯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페니스를 수용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동성애 경향을 갖게 한다. [아버지 페니스를 가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함] 양성 모두 어머니의 신체와 아버지의 페니스를 공격하는 시기를 거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겪는 불안의 경험은 장래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신체나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는다면, 그녀는 성 역할 학습에 있어서 어머니와 동일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신체를 공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의 회복 욕구를 자극한다. 이것이 여자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의 페니스를 더욱 갈망하게 하고,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쾌락과 아기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게 한다. 페니스는 좋은 면에서 본다면 어머니의 신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불안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여자아이는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자신의 성적 활동과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소망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적 어머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남자아이의 경우 역시 어머니의 신체나 아버지의 페니스를 갖고 싶어하고 선망하며, 동일시하는 기간을 통과하는데, 클라인은 이를 남자아이의 여성적 자리로 기술하고 있다. 만약 어머니의 몸이 지나치게 불안을 자극하면, 남자아이는 자신의 신체를 어머니의 몸과 동일시하여 우울 불안을 발달시킨다.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일시하면 그의 성적 욕구는 외적 대상인 어머니에게로 향하게 된다. 남자아이의 전능환상에 의해 야기된 파괴에 대한 과잉불안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공포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포는 어머니의 신체 이미지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일곱 살 된 존 (John)은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었다. 다음날 존은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는 나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물고기는 게였다. 존은 가끔 어머니와 함께 갔던 바닷가 방파제에 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 방파제로 다가오는 굉장히 큰 게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작은 총으로 게를 쏘고, 칼로 찔렀다. 그러나 게는 잘 죽지 않았다. 그 게를 죽이 자마자 물 밖으로 나오는 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는 계속해서 게들을 죽였다." 나는 존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게들이 세상 밖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들이 온 세상을 파괴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존은 그 전날과 똑같은 자리로 가서 그 전날보다 더 세계 책상을 발로 찼다. 그래서 내가 존에게 왜 책상을 발로 차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물 위에 누워 있는데 게들이 모두 저를 빙 둘러싸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 전날의 가위는 게들이 존을 물

고 자르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이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배와 수상 비행기를 그렸다. 내가 그에게 방파제에 서 있었지 않았냐고 말하자, 그는 네, 그렇지만 한참 전에 물 속으로 떨어졌어요"라고 대답했다. 게들은 대부분 고깃덩어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고깃덩어리는 바다 위에 있는 집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양고기라고 했다. 그가 말하기를, 게들은 아직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문과 창문을 통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물 속의 모든 광경은 어머니의 내부, 즉 세계이다. 고깃덩어리 집은 어머니의 몸과 그의 몸을 상징한다. 무수히 많은 게들은 아버지의 페니스를 나타낸다. 게들은 코끼리처럼 컷고 바깥은 검고 안은 붉었다. 게들은 검었는데 어떤 사람이 게들을 검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물 속에서 검게 변했다. 게들은 바다 바깥에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 물을 검게 만들었던 사람이 게들을 모두 물 속에 집어넣었다. 여기에서 게들은 아버지의 페니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설물이기도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들 중 하나는 바닷가재만 하고, 안팎이 모두 붉었다. 이것은 존 자신의 페니스를 의미한다. 존이 그의 배설물을 위험한 동물과 동일시하며, 그의 명령(아이의 마술적 힘에 의하여)에 따라 위험한 동물들이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페니스를 상해하고, 독살시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존에게 있어서 전세계는 어머니의 몸이었고, 이에 대한 그의 공포는 세계로 폭넓게 확장되었으며, 그의 호기심과 학습 능력은 위축되었다. 그러므로 남자아이의 거세 불안은 아버지와 오이디푸스적 경쟁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몸과 그녀의 몸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의 위험한 페니스에 대한 초기의 불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불안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유익한 성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고, 성기적 활동을 어머니의 신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성에 대한 견해에서 "여자아이의 성발달은 남자아이의 발달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해 오랫동안 전-오이디푸스적 고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성기적 충동이 활동하게 될 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처럼 어머니를 성적 욕망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나 남근기에 가서 자신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나 남자 형제의 페니스를 부러워하게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페니스 선망은 여자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것이 정신병리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아는 커다란 분노를 갖고 어머니를 외면한다.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여아의 뿌리 깊은 증오는 페니스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에게 페니스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머니가 젖을 충분히 먹여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아는 다음으로 자신의 페니스에 대한 요구를 체념하고, 페니스와 같은 의미를 지닌 아버지의 아기를 갖고 싶어한다. 여아는 또한 오랜 성적 잠재기를 갖는다. 이것은 질을 발견할 때까지 지속되며, 사춘기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남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거세불안 때문에 끝나게 되는데, 반대로 여아는 거세불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야기시킨다.

클라인은 남아나 여아 모두 어머니에 대한 전성기적 집착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이 꼭 전-오이디푸스적이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가 욕망의 대상과 경쟁자가 되는 것은 이미 후기 구강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구강기적 관계는 성기적 관계에 앞선다. 남근기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다르다. 그녀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페니스를 지닌 어머니에 대한 환상은 아버지의 페니스를 갖고 있는 어머니의 몸에 대한 환상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여아가 오랜 성적 잠재기를 갖는다고 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아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어머니의 몸이나 아버지의 페니스에 관심을 옮기자마자 전성기기적 오이디푸스 갈등이 바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여아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원하고 탐내다가 다음에는 아버지의 페니스와 아버지의 아기를 갖기를 바라고 탐내며, 이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져와 여아의 환상과 불안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좀 더 구분된 대상으로 인식되면 아버지는 단순히 어머니의 부속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의 원하는 대상이 되며, 보다 성기기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형태가 점차적으로 전개된다.

클라인은 초자아를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초기 구조로 보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초자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결과(상속자)라기보다는 그 선조로 보았다. 초기의 좋은 젖가슴이나 나쁜 젖가슴을 내사하는 것이 초자아의 형성과 관련되고, 이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에 나타난다. 클라인은 또한 초자아가 실제 부모보다는 아이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초기 연구로부터 클라인은 아이의 가학적 충동을 초자아의 엄격성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시켰으며, 여기에서 보복의 법칙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이 나오고, 가학적 충동이 초자아에 "각인"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처음으로 아이가 자신의 공격적 충동을 내적 대상에 투사하여 대상을 벌하며, 이것이 초자아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적 대상에 대한 투사 개념은 연구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여아의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는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퍼내고, 그 몸 안을 파괴할 것이라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견해는 존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그는 이것을 "내적파괴(aphanisis)에 대한 공포"라고 불렀다." 클라인은 여아의 페니스 선망과 거세불안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초기에 여아는 어머니가 내재화된 페니스를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면, 아버지의 페니스가 어머니를 소유하고, 조종하고, 공격하고, 혹은 복원하는 힘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탐내게 된다. 오이디푸스 상황에서 페니스를 탐내는 것은 오이디푸스 질투의 파생물이다.

남아의 경우에도 역시 페니스를 탐내는데,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갈망과 관련된다. 거세불안은 성기기에 최고조에 이르지만, 남아의 여성적 단계와 관련된 초기 공포-퍼내어지고, 내부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초기의 불안이 거세불안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것을 증가시킨다.

불안은 초자아의 박해공포와 관련되어 있으며, 초자아의 박해공포는 아동의 공격성이 투사되어 나타나고, 죄책감은 초자아의 엄격성이 완화되면서 일어난다. 또한 대상에 대한 죄책감이 불안보다 강해진다. 클라인은 후기 구강기 중반(6~9개월)에 아동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시작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1934년까지 클라인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최대 가

학기에서 시작되며, 젓을 떼는 이유기의 상처에 의해 유발됨으로써 증오가 우세한 가운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최대 가학기에 시작된다는 견해를 포기하고, 후기 구강기에 시작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게 되었다.

참조문헌: 멜라니클라인 정신분석학